강진 수산물가공 특화단지 '첫 삽'

칠량면 14만8천㎡에 총공사비 102억원 들여

2010년 말 완공… 고용창출·소득증대 기여

강진만 청정해역의 풍부한 해조류 원료를 이용한 수산물 가공전문 특화단지가 강진군 칠량면 송로리 일원에 들어선다.

군은 최근 황주홍 강진군수를 비롯한 이삼현 강진군의회의장과 의원, 도의원, 강진교육장, 강진경찰서장, 주민 등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칠량 농공단지 기공식을 가졌다.

칠량면에 들어선 농공단지는 14만8천810㎡ 부지에 총공사비 102억여 원을 들여 201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들이 조성된다.

강진 칠량 농공단지는 지난해 2월부터 한국농촌공사의 농공단지조성 예정지 타당성 검토와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공단지 타당성 검토결과 적합통보를 받고 강진군의회 의결과 전남도 심의를 거쳐 첫 삽을 떴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는 강진 칠량농공단지는 이날 기공식과 함께 착공해 입주 신청을 한 15개 관련 업체들이 오는 2010년 정상적인 공장가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강진군은 미역, 다시마 등 수산물들을 기존의 1차 판매에 그쳤던 현실을 개선해 2차 가공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서 지역민 200여 명의 고용인력 창출과 30억여 원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칠량 농공단지는 오폐수 생산기업이 일체 들어설 수 없는 친환경 무공해 농공단지로 조성된다.

황주홍 강진군수는 "칠량 농공단지가 착공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신안 올해산 천일염 내달 15일 생산 종료

전국 천일염 생산량의 65%를 차지하는 신안군은 친환경 천일염 명품화를 위해 생산자에게 올해산 '천일염 생산 종료일'을 다음달 15일로 지정해 통보했다.

군이 천일염 생산 종료일을 지정한 것은 평균기온이 낮은 시기에는 굵기가 작고 염화나트륨 함량이 많으며 쓴맛이 나는 저품질 천일염 생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평균 기온 15℃ 이하에서 천일염 생산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천일염 생산자 스스로 품질 균일화와 고급화를 위해 생산 종료일을 적극적으로 준수, 수입품과 차별화되는 명품을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멸종 위기종 '수달' 완도 무인도서 발견

완도 금일면의 한 무인도에서 수달과 매 등 멸종위기종(1급)이 발견됐다.

목포 지방항만청은 지난해 신안군 비금도 일대 무인도를 조사한 데 이어 올해는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소에 의뢰해 금일·생일·금당면 등 7개면 지역의 14개 미등록 섬을 대상으로 '무인도 실태조사'를 벌였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수달, 매와 함께 국제보호종인 섬개개비가 발견됐고 와도에서는 퇴적암과 층리 구조, 안매도에서는 상록활엽수림의 우수성이 확인되는 등 해안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삼열 목포항만청장은 "이번 조사는 무인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7년 8월)이 제정됨에 따라 시행하는 용역으로, 무인도와 그 주변해역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된다"고 말했다. /목포=이상선기자 sslee@

전남농협·영광축협 축사 소독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와 영광축협 직원들이 지난 26일 영광군 묘량면 축산농가를 찾아 축사와 축사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이들은 또 축분을 수거하고 사료를 주는 등 농가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나주, 자치박람회 최우수상

나주시는 제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제도 정착과 센터활성화 분야 등 2개 분야에 참가해 각각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4일부터 3일간 인천에서 열린 박람회에 참가한 나주시는 주민자치제도 정책분야에서 '시민과 함께 여는 참여와 소통의 자치문화만들기'를 주제로 전국 최우수 사례로 뽑혀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자치문화만들기'는 2002년부터 나주시가 참여자치 정착과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위해 민선 4기 공약이기도 한 주민참여 예산제, 상시 주민자치 교육시스템 구축, 시민참여형 인재양성, 민·관·NGO의 협력네트워크 마련 등을 추진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